



선현미담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나이

· 어린이(6~9세)

주제

· 목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 주제: 말조심, 존중

핵심어

· 말조심, 존중, 맹사성, 정승, 주막, 젊은 선비, 공당놀이, 말놀이

한국 문화

· 목표: 옛날(특히 조선시대)에 나그네가 길을 가다 밥과 술, 잠자리를 제공받아 쉴 수 있었던 '주막'을 알 수 있다.
· 요소: 주막

한국어

· 목표: 동사 '조심하다'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고 활용한다.
· 단어: 조심하다
· 표현: 말을 조심하다, 행동을 조심하다, 감기 조심하다, 길을 걸을 때 조심하다.

🌸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딱딱!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래요.
기분이 좋지 않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지혜로운 맹사성 대감의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선비가 허름한 맹사성을 보고 무시하듯 말을 했대요. 그때 맹사성은 젊은 선비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재미있는 말놀이를 말조심을 가르쳤다고 해요. 맹사성이 어떻게 말조심을 가르쳤는지 알아보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 때 맹사성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맹사성은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 중에서 으뜸인 정승까지 되었지요. 하지만 맹사성은 검소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맹사성 대감은 정승인데도 우리 집보다 더 작은 집에서 사신대.”

“음식도 늘 소박하게 드신대요.”

“아유, 나는 그분이 비단옷 입으신 걸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모두 그런 맹사성을 존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맹사성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던 맹사성 눈에 주막이 보였지요.

“잘됐다! 저 주막에서 쉬어 가야겠어.”

맹사성은 얼른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저런, 앉을 자리도 없네.”

맹사성은 혹시 자리가 있을까 하면서 기웃기웃 살폈지요.

그런데 젊은 선비가 자리를 몽땅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데리고 온 하인들까지 빈틈없이 죽 걸터앉아 있지 뭐예요.

‘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군!’



🌸 이야기 들려주기

맹사성은 들으라고 일부러 '에헴' 헛기침을 했어요. 젊은 선비는 그제야 맹사성을 흘깃 쳐다봤어요. 허름한 맹사성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빈정거리며 말했지요.

"홀딱 젖으셨구려. 어쩌다가 그리 비를 맞았소?"

"비가 오는데 피할 자리가 없으니 비를 맞지요."

맹사성의 대답에 젊은 선비는 화가 났어요.

'이 시골 늙은이를 좀 놀려 줘야겠군.'

젊은 선비는 맹사성에게 앉을 자리를 주고선 말했어요.

"급한 일이 없으시면, 여기 앉아 놀이 한번 하지 않으시겠소?"

젊은 선비는 어려운 걸 물어 맹사성에게 창피를 줄 생각이었지요. 맹사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 좋은 생각이구려."

젊은 선비는 히죽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공'으로 묻고 '당'으로 답하는 놀이를 합시다."



❁ 이야기 들려주기

맹사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저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서울에 올라왔는공?”

“과거 시험을 치러 왔당.”

젊은 선비가 곧바로 대답했지요.

“무슨 시험인공?”

“재주 좋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당.”

젊은 선비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맹사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합격시켜 줄공?”

“웃기는 소리당.”

젊은 선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얼마 뒤, 맹사성은 궁궐로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온 관리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젊은 관리들은 한 줄로 공손히 서서 맹사성에게 차례로 인사를 했어요. 맹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말했지요.

“내 일처럼 나랏일을 열심히 해야 하네. 항상 명심하게나.”



❁ 이야기 들려주기

“예!”

관리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나라의 최고 벼슬인 정승이 하는 말이니깐요.

그때 맹사성 눈에 띄는 관리가 있었지요. 얼마 전 주막에서 공당놀이를 했던 젊은 선비였어요. 맹사성은 젊은 선비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찌 여기 있는공?”

젊은 선비는 그 소리를 듣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앞에 정승 맹사성이 웃으며 서 있었지요. 젊은 선비는 금세 얼굴이 파래졌어요.

‘시골 늙은이가 그 유명한 맹사성 정승이었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젊은 선비는 바닥에 납죽 엎드렸어요.

“죽어 마땅합니당.”

“하하하!”

그 모습에 맹사성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궁금해서 다들 눈이 둥그레졌지요. 맹사성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아이고, 그런 일이!”

“허허허!”

모두 맹사성과 함께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젊은 선비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 후로 잘못을 깨달은 젊은 선비는 절대로 외모와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늘 조심했지요. 젊은 선비는 맹사성의 넓고 깊은 마음을 본받아, 아주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맹사성이 젊은 선비와 공당놀이를 했는데, 이 말놀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쳤나요?

네, 젊은 선비에게 말조심을 가르쳤지요. 조심하는 것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자', '행동을 조심하자'는 말을 써요. 또 '감기 조심해', '길을 걸을 때 조심해' 등 마음에 새겨 주의하는 것도 '조심하다'를 쓴답니다.

여러분, 맹사성 대감이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 비를 피한 곳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일까요?

네, 주막이었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식당이나 휴게소, 호텔이 많이 없었어요. 먼 길을 갈 때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쉬어 갈 곳이 꼭 필요했지요. 그곳이 '주막'이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피곤하면 하룻밤 잘 수 있는 곳이었답니다. 나그네들은 주막에 들어서 따뜻한 국밥을 먹고,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지요. 주막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당놀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조선시대 정승 맹사성은 검소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날 비를 피해 들어간 주막에서 젊은 선비가 그의 외모와 차림새를 보고 무례하게 대했지요. 하지만 맹사성은 화내지 않고 '공당놀이'를 통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지요. 훗날 젊은 선비는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반성하며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맹사성의 넓고 깊은 마음을 본받아, 외모와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